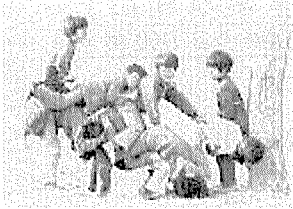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개구쟁이 철부지들 어디로 갔을까요?

작가 김주영



입에서 비린내가 훅훅 풍기는 아이들 대여섯, 골목 밖으로 뛰어오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까닭은 없습니다. 마냥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적성이 풀리는 나이들이니까요.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달려가고, 하늘 끝에 달을까 싶도록 아스라하게 연을 날리고, 굴렁쇠를 굴리며 마을의 골목길 어디 안 가는 데가 없고, 붓도랑의 송사리 떼를 두 손 안에 담아내려 온종일 씨름하고, 나락 눈으로 날아드는 새 떼를 쫓는다는 핑계로 가을소풍 때마다 결석하던 그 아이.

교실에서 슬쩍한 백묵으로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문짝에다 '이영득 자지 굴따'라고 낙서하는 개구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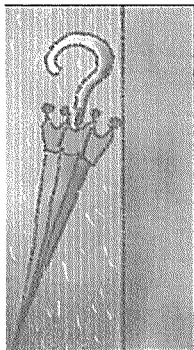
단맛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없었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훔쳐 냅니다. 그러나 지폐가 가진 값어치의 두께를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마을 들머리에 있는 구멍가게로 달려가서 사탕을 가리키며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가게의 아저씨는 커다란 비닐 주머니에 담긴 사탕 한 봉지를 통째로 건네줍니다.

아이의 사탕 봉지를 낚아채서 인적이 드문 호젓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먹고 또 먹어도 사탕 봉지는 줄어들 기미가 아닙니다.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심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는 그날 해질 녘까지 골목 담벼락 아래에 숨어 눈이 붓도록 울면서 사탕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잡아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몸에서 단내가 물씬 풍기는 것을 눈치 챘습니다. 몸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은 신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까닭을 모르는 어머니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찬 수건으로 이마를 찜질해 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신부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림 말씀▶ 하나님 = 우산(?)

비가 올까봐 챙겨간 우산  
비가 올 때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하나님을 우산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  |   |  |
|--|---|--|
| 교회목표<br>하나님만이<br>삶과 교회의<br>주인  |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br>(히4:12-13)<br><b>갈보리교회</b><br>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br>누가 10:37<br>*자원함 -성김과 봉사<br>*익명성 -명예 |
| 제10권 16호   | 기초성경공부이스.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8년 4월 20일                                   |
|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   |  |

◀하나님! 나의 하나님▶ 뒤늦은 깨우침

김성국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이 나이되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이만큼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보다 더 무난히 살고 있을거라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아니면  
당신 계신 곳 울스 없다 하신 말씀  
그것만은 어찌하지 못해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만큼 된 것이  
누구의 덕택인 줄  
그 말씀이 알려 주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기▶

배고플 때의 믿음0  
진짜 믿음이다

◀인품 따라 행하기▶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                                    |              |           |
|------------------------------------|--------------|-----------|
| 목도와 참회의 기도<br>Pray & Confession    | 성가대          | 다 같이      |
| *찬 송<br>Hymn                       | 23장          |           |
| *신 앙 고 백<br>Apostle's Creed        | 사 도 신 경      |           |
| 찬 송<br>Hymn                        | 172장         |           |
| 기 도<br>Pray                        |              | 김영길 집사    |
| 성 경 봉 독<br>Scripture Reading       | 사도행전 26:9-15 | 인 도 자     |
| 성가대 찬양<br>Choir                    |              | 나무심자가 성가대 |
| 설 교<br>Sermon                      | 가시채 뒷밭질하기    | 장순영 선교사   |
| 찬 송<br>Hymn                        | 463장         | 다 같이      |
| 헌 금 기 도<br>Offering Pray           |              | 인 도 자     |
| 교 회 소 식<br>Welcome & Announcements |              |           |
| 응 답 송<br>Response Song             | 여기에 모인 우리    | 다 같이      |
| 축 도<br>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583      총액: \$ 438,782.74

갈보리 성경 100독: 15독

### ◆4월 예배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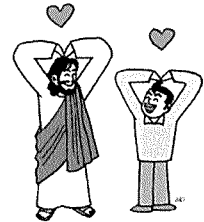
| 일자 | 기 도 | 주차안내 | 안 내      |
|----|-----|------|----------|
| 6  | 김교섭 |      |          |
| 13 | 김순자 | 서재오  | 안내부 & 권사 |
| 20 | 김영길 | 최현철  | 새교우:     |
| 27 | 노은숙 | 황존직  | 백제성 노은숙  |

### ◆4월 교회력◆

| 일자 | 주 일 & 예 배 | 모 임      |
|----|-----------|----------|
| 6  |           | 구역예배(11) |
| 13 |           |          |
| 20 |           | 구역예배(25) |
| 27 | 이삭줍기주일    |          |

|   |   |
|---|---|
| 『2008 신앙생활』<br>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br>1년중 성경 1번 읽기<br>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br>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 『교회 등록』<br>*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br>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br>*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br>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 7:00 pm  |

- 정기구역예배 <일시> 24일(금) 저녁 7:30분  
\*이번주간에는 ANZAC Day(25일) 공휴일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금주수요예배는 목요일 찬양집회에서 갖습니다.  
\*금주 수요예배는 학교측 행사관계로 Hall을 사용할 수 없어 목요찬양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고형원 찬양집회』 <일시> 24일(목) 저녁 7시-9:30분 <장소> Hall  
\* “부흥” “물이 바다덮음 같이” 등의 작곡자이며 찬양사역자인 고형원 찬양집회는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세례. 유아세례 대상자 신청을 바랍니다.<신청: 구역장. 교육부서장>  
<세례일> 5월 4일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 만4세 미만 \*세례: 15세 이상. 교회출석 1년을 경과한 교우  
구역장, 교육부서장께서는 세례대상자를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4기』 네번째 기도모임  
<일시> 4월 22일 저녁 7:30분. 교회사무실  
\*요즘은 교우들로부터 “성경 다 읽었다” 는 전화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읽어갈때에 우리 가슴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성전건축헌금도 드리고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성전 허락하시는 때가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 하여 주십시오.
- 새벽기도회 <매 금요일 새벽 5:50분>  
\*일어나기는 새벽닭처럼, 믿음은 독수리처럼....



### ◀한 줄로도 긴 생각▶

어느새 내 걸음이 아들 걸음보다 느려졌구나.  
아버지들은 자식들보다 삶의 짐이 더 무거워서겠지.  
- 김 목사 -